

국내 VAN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金光鎬

三星데이터시스템(株) 情報通信事業本部

I. 서 언

최근 급변하는 국제상황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VAN 사업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토의 되어지고 있다. VAN 사업은 혼성사업으로 정확한 정의도 나라마다 약간씩 상이하며 나라마다 여건, 기술수준, 국민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이 달라서 어떤 한 나라의 성공사례가 그대로 다른 나라에 적용될 수도 없으며 실패사례를 되풀이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것이다. 더우기 VAN을 포함한 정보통신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성격이 강해서 그에 관계된 정책은 신중함과 함께 미래지향적이며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한미간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오히려 성장의 큰 자극제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정부 관련부서나 정부투자기관 만의 의사가 아닌 국민전체와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AN 사업에 참가한 민간기업으로 국내 VAN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II. 기존 시장의 효용성 증대

최근 컴퓨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회선의 고장으로 인한 통신두절을 꼽고 있다. 또한 최근에 급격히 보급이 확대되는 16bit PC의 주된 수요자인 학생층과 일반 사무실에서도 PC의 사용효율이 떨어지는 주된 요인은 컴퓨터간의 통신기능 부재로 기존의 통신수단인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한번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도 다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시간, 장비의 낭비가 심하다. 이미 구입한 장비의 활용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사회 각 분야에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회선설비 및 그 사용에 관한 자율화 조치가 시급하다.

III. 자유경쟁을 통한 최량의 서비스제공

물론 DACOM을 통한 데이터 회선사용 및 국제간 연결 혹은 전자사서함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잠재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다양화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함께 지속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 정보서비스의 질은 정보통신망의 질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므로 양질의 통신망이 적정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통신시장 개방을 늦추는 큰 이유로 국내 기술의 취약을 드는데 기술의 자생력 확보는 시장이 조성되어 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경쟁적으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때 가능한 것이며 정보통신시장의 독점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대규모 기술투자를 미루게 만들고 따라서 대외시장 완전개방 때까지 기술축적도 함께 미루어 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IV. 기술발전의 불균형 시정

최근 컴퓨터 자체의 연산능력이 보다 강력해 지고 주변장치의 기능도 발전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의 양도 급증하게 되었으나 통신망의 구조는 후진국

형에서 별로 발전하지 않아서 전달해야 할 데이터량에 비하면 통신선로의 양과 질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이 VAN사업을 위해 전국적인 node를 설치할 경우 node 간 고속선로를 제공하면 회선 재판매 사업을 하게 된다고 현재 법으로 9600bps까지만 mux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원래 VAN 사업중 일부가 회선 재판매이므로 이를 규제할 타당성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회선판매로부터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정부의 정책선택이 국내산업의 자생력 강화나 다국적기업의 국내시장 잠식방지 등의 명분에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시급히 양질의 고속통신망을 민간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단순한 회선 재판매만으로는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비용절감 및 업무개선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당국은 강력히 회선의 품질 및 속도를 개선하여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어서 민간기업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존 통신망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없이는 엄박한 통신시장 완전개방 시기를 6개월이나 1년정도 미루기 위해 줄다리기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변모하는 한국의 정보통신사업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V. VAN 사업의 대기업 주도

통신시장의 규제완화는 대기업에 의한 시장선점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에 위배되며 특히 외국기술과의 합자로 국내시장에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VAN사업 자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복합한 사업이므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 칩, 광통신, 무선통신, 자동교환기, 컴퓨터 등의 개발에 기술과 자본축적이 이미 이루어진 대기업 주도로 더욱 고용효과와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기업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중소기업간의 전자식 정보교환(EDI)은 국내산업이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시급하므로 고속회선사용 및 다중화 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현재 고가인 통신장비의 국산화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R&D인력을 전력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내시장은 유럽의 양상과는 달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로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

식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기업이 주도하여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전산화는 VAN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낮은 코스트로 네트워크 전개가 가능하며 시행착오와 요원확보 등의 부담없이 본래의 업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다. 과거 유럽에서 대형도서관이 설립될 움직임이 보이자 출판업자들은 기존의 독서인구가 더이상 책을 사지않고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것을 우려해 반대가 많았으나 오히려 대형도서관은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여 출판업자의 사업이 더욱 확대된 경우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풍부한 두뇌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선진국 대열에 착실히 진입해 가기 위한 발판으로 시장형성 및 자유경쟁을 통한 VAN사업 활성화에 정책당국의 과감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수요자는 확실적인 정보를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즉 전문적인 VAN사업자를 원하는 것이다. 반도체기술의 혁신적 진보로 각종 장치가 더욱 소형화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수요자의 VAN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데 사용자가 많아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VAN의 특성에 반하여 회선사용료가 비싸고 정보량이 절대 부족하므로 정부투자기관의 독점은 시장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국민의 정보문화창달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시장실패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VI. 정보통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창출되는 많은 부가기능은 특별한 기술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장비의 응용 및 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업무에의 적용 등 3차산업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정보산업의 발전은 반드시 기술의 혁신에 의한 결과만도 아닌 것이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처리 업무에 오래 종사하던 사람도 통신부문에는 생소한 경우가 많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업무도 불합리한 현재의 이용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시장 완전개방의 실질적인 효과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부문은 전자식 데이터 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이다. 기업간 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서류의 양식을 동종 기업간이나 유사형태의 사업자간에 표준화시켜서 신속, 정확한 자료입력을 위해 품목 및 주요항목을 코드화시키고 주문서나 견적서의 작성을 위해 입력된 자료는 코드화 되어 자재, 생

산, 운송, 재고 등의 관리에 계속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의 법규하에서는 전자메일 수준의 정보서비스도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EDI를 이용한 기업간 정보교환은 아직 현업에서 뿐 아니라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 간에도 잘 인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정보통신 시장은 그동안 따로 떨어져 발전해 오던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처리 분야와 전화나 텔렉스를 위주로 한 통신시장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통신시장의 속성상 정부독점을 유지하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화나 텔렉스는 그 사용분야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체제와 서비스를 유지하면 되므로 독점의 피해가 적고 대도시보다는 전국에 걸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정부독점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는 경우란 요금체제, 회선품질, 가입시의 불편 정도에 불과하나 정보통신 사업은 대도시나 산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을 가지면서 적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하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현업과의 연계에 가동성이 요구된다. 행정당국의 기존의 규제와 독점으로 유지되어 오던 통신시장의 관행을 답습하는 비능률적인 제도보다는 개방후 직면하게 될 시장확대와 산업구조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시장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EDI의 보급을 위한 산업분야의 표준화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Ⅶ. 회선 이용제도상의 개선점

이제까지의 국가통신정책이 공중통신사업자 위주의 정책으로서 일반대중에 대한 통신망 이용기술의 확산 및 회선이용 제도상의 불평등한 제도 적용으로 정보통신 역무제공자를 비롯한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정보통신분야의 시장참여에 애로가 많았다.

해외의 정보통신분야 개방압력에 따라 늦어도 2년 내에는 대외개방이 예상되는 바이므로 국내 통신업계도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가의 통신정책도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민간업계에 회선 이용제도를 완화하여 민간업계의 사업참여를 촉진시켜 줌으로서 이를 통해 기간산업의 정보화가 이룩되어 향후의 우리나라 각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회선 이용제도상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1) 정보통신 회선의 타인사용 특례인정 확대

최근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개발되는 각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운용 소프트웨어는 각사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서 제작된 것으로 이를 사용하는 고객은 제조회사가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 기업 내에서는 표준을 설정할 수 있으나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서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달라 표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표준의 부재는 시스템 선정시 가능한 고유한 목적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회사가 주로 사용하는 기종을 선정하여 위험부담을 가능한 줄이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 특정 컴퓨터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행 제도상 기업간 정보통신은 그룹내 이거나 그 협력 회사로 국한하고 있는데 금융, 보험, 무역, 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업종이나 제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기업이 업무를 처리해 나감을 감안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간의 통신매개 수단으로 VAN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VAN은 기업간 교류 및 협력강화와 특정업체의 컴퓨터시장 독점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2) 망간 상호접속의 확대

기업의 전산화는 필연적으로 전산전담부서의 기능강화와 타부서와의 마찰을 가져오며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산전담부서와 PC 등을 이용해 단위업무를 처리하려는 현업의 요구 확대는 기업의 정보관리 부분의 비대화를 가져온다. 여기에 최고 경영층의 전산에 대한 인식부족과 현업의 실정을 무시한 급진적인 전산화는 자사 내부에서만 사용가능한 단기적인 표준을 설정하게 되고 동종기업이나 관계사와도 상이한 체제로 운영되어 시스템화장이나 네트워킹을 구성할때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필요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시행착오를 서로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 동종업체간의 VAN구축이 가능하도록 개방이 되면 기업은 시스템의 핵심만 자영으로 유지하고 다른 부분은 전문 VAN회사에 위탁할 수 있어 기업의 정보관리부분의 비대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의 정보통신망간 상호접속이 꼭 필요하다.

3) 국제 특정통신회선을 경유한 해외망과의 연결 허용 기업내 OA의 추진은 필연적으로 OA장비의 사용 효율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크를 구상하게 되고 FAX나 텔렉스, 우편 등 분산된 통신기능을 하나로 집약시키기 위해 OA의 결정적인 수단으로 전자 사서함을 고려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게 되고 최근 동구권과의 교류도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지사의 설립이나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해외망과의 연결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메일의 속성상 신속, 정확도 중요하지만 시간대가 다른 해외지사나 국제간 교역에 그 활용이 특히 기대되므로 국제 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을 허용하여 그룹 VAN 허용 취지가 달성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제간 전자메일의 보급은 기존의 전화나 FAX를 사용하던 경우 가중되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고 종이나 복사기 등 사무용품의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즉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다중화장치 등의 접속허용 확대

전자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 통신회선을 공유하여 회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첨단 통신제품의 접속을 위한 규제조치가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다중화장치의 접속은 9600bps이하급 회선에 한정되어 있는바, 56K bps이상 고속회선에 대해서도 다중화장치 접속이 허용되어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의 BACKBONE NETWORK구축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대내개방이 되도록 다중화장치 접속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Ⅷ. 결 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의 성장은 국민경제와 대외시장 개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두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전환하여 선진국 대열에 도입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그간 치열한 경쟁과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을 성장시킨 지력과 끊임없이 생동하는 개척정신을 가진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열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즉 사용자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행정당국의 사심없는 계획과 소신이 요구된다. (국기)

筆者紹介



金光鎬

1947年 7月 16日生

1971年 2月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1985年~1986年 삼성전자 기획조사 실장

1987年~현재 삼성데이터 시스템(주) 네트워크 사업부장